

# “화합·상생으로 종교간 갈등 풀자”

## 불교교권수호협, 23일 부산 KBS홀서 ‘종교평화 기원 불교수호대법회’

“어리석은 청년들이 기도한다고 불교가 무너지겠는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참다운 종교관을 키워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주인이 주인노릇을 똑바로 못하니 남의 집을 함부로 넘보는 것이다. 이반을 계기로 불자들이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고 결속력을 보여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6년 6월 4일 백스코에서 열렸던 개신교 청년단체 기도회에서 ‘사찰이 무너지도록’이라는 기도 문구를 사용하며 구체적인 사찰명까지 거론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부산불교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러나 부산불교계는 침묵하지 않았고 엇갈리는 의견들을 모아 부산불교계 출제자가 대대적으로 참석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개신교 청년단체를 향한 공개 항의 및 사과 요구는 물론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왔다.

불교교권수호협(회장인대표 정각) 주최로 1월 23일 오후 3시 부산 KBS홀에서 열리는 불교수호대법회도 부산불교계의 이 같은 노력 중의 하나다. ‘종교평화’를 대전제로 열리는 대규모 불교수호대법회는 타종교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일부 불상사한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부산불교계의 강력한 의지 표명

이며, 더불어 불교계 내부의 정진력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부산불교계의 움직임은 그동안 수많은 해를 사건이나 교권침해 사례를 접하면서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던 불교계가 이에 대응하는 전담기구

**호법단 구성 및 3000배 정진기도  
반야심경 사경 발원문 작성 사업도  
3월에도 발심대법회 개최 예정**

를 만들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나선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23일의 행사는 부산불교계 행사 중 최대 규모인 50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비롯, 50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종교평화와 불교탄압 및 훼손 사례 전시, 교권침해·불교탄압 사례 발표, 영상물 상영, 참회정진, 호법단 발대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불교중흥과 교권수호를 위한 호법단 발대식, 신행단체 또는 사찰 신도 108인으로 구성된 108호법단은 2월 2일 교권 수호를 위한 3000배 융맹정진기도를 하게 되며, 각 사찰별로 호법단을 꾸려 지속적으로 교권수호와 불교중흥을 위한 기도회를 병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권수호협회의는 교권 수호 움직임이 단순히 개신교 청년연합의 기도회에 대한 대응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매일 반야심경 1회 사경과 발원문 작성, 불교수호 기도금 모금, 교권침해 사례 모음집 발간 등의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권수호협회의 상설화를 추진 중이며 호법단 3000배 기도회와 사암연합회 기도 등의 열기를 이어 3월 중으로는 발심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러한 교권수호의 열기를 2007년 불복 범오식에 맞춰 불교중흥의 기쁨을 삼겠다는 각오다.

한편 2006년 6월에 열렸던 기도회에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1월 23일 범어사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부의 청년들은 이명박 전 시장의 범어사 방문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051)866-338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ews.com

# 그림 속 불보살도 미소 짓네!

## 범어사, 불우이웃돕기 선서화전 열어

### 초의 선사 그림 첫 공개 눈길

묵향에 더해진 선향(善香)이 부산시청 전시실에 가득하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청 제 1.2.3전시실에서 2007 범어사 선서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전 전시회에서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는 초의 선사의 그림(사진)을 비롯, 고승대덕의 작품 300여점이 전시실을 장엄한다.

12일 오픈 기념식으로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 마련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전시회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300점이라는 작품 수는 물론 초의 선사의 그림, 청담 스님의 글, 경봉 스님의 전신담마, 서암 스님의 그림 등 작품의 가치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전시 이후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인 초의 선사의 그림, 무불, 석정, 일미 스님을 거쳐 오며 소중히 간직돼 오던 초의 선사의 그림은 시대를 지나도 변함없는 불보살의 미소를 간직한 채 일반인의 마음을 붙든다.



이 밖에도 월하, 석주, 일타 스님 등의 선서화와 쟁세조 조실자 원로의원인 고산, 영주암 조실 정관, 범어사 주지 대성, 선암사 주지 원범,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 등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작가 이외수씨, 학정, 정로, 소공 거사 등 화단에서 인정받는 거사들의 작품들도 다채로움을 더한다.

특히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이 소장해 오던 작품과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이 10여 년 동안 수집하고 소장해오던 작품을 흔쾌히 기탁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051)508-3122

천미희 기자

# “기도는 국가발전 이끄는 원동력”

## 법연원, 나라위한 천도기도법회 봉행



목은 물론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 등을 서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前 대각사 주지 흥교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기도의 원력은 개인의 삶은 물론 나라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며 “법회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융맹정진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회를 맑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원은 2000년 일본 탄광 수몰자 위패를 법당에 안치하고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온 데다 장애자, 정신지체인, 정신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으로써 이날 법회에서 관련 사회단체 23곳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허남시 부산시장, 순학구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종교계, 정계, 재계, 언론계, 사회 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천미희 기자

# 범어사 특색있는 템플스테이 태극권 한지공예 주제로

‘사하촌 주민들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 여는 사찰에서 잘 시도하지 않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많은 템플스테이를 자랑하는 곳 이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다.

선찰대본산 범어사가 올하는 ‘전통 한지공예’와 ‘태극권’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극권 1차 템플스테이를 연 것을 시작으로 17일부터 19일(태극권 2차), 21일부터 23일(전통한지공예 1차), 26일부터 28일(전통한지공예 2차)로 이어진다.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열리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전통한지를 뜯고 찢어서 불이면서 연필꽃이, 사각접시, 액자, 찻상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지며 태극권 템플스테이는 지도법사 현담 스님의 지도 아래 기본 행공(양상공), 정오 18식(진씨 태극권) 등 동작을 배우게 된다.

특별 프로그램뿐 아니라 스님과 함께 하는 사찰 예절, 108배, 참회 정진 기도 등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

지게 된다.

대상은 초등부 고학년, 중등부, 일반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은 범어사 홈페이지(www.beomeosa.co.kr)에서 할 수 있다. (051)508-3122-5 천미희 기자

# 불교기초영어강좌 개설 영남불교대학 27일부터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주지 우학)가 불교기초를 영어로 강의하는 불교기초영어강좌를 개설한다. 조계종에서 실시하는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영어시험에 대비하고,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사찰안내 및 불교기초를 영어로 설명하며, 국제화시대에 영어를 통해 불교를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되며,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U.C Berkeley)대학에서 연수한 조계종 국제포교사 우성연 강사가 강의한다. 강의 내용은 불교용어, 부처님의 생애, 교리, 사찰안내 등이다. 화비는 월 2만5000원이다. (053)474-8228

배지선 객원기자

# “여성불자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 17일 부산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원장 이영숙)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기념 마련에 나선다.

1월 17일 부산 코모도호텔 회락장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바자회를 열고 여성 불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역량 모으기를 시작한 것이다.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시 창립 1주년 기념법회가 이어지며 밤 9시까지의 불교용품, 한지공예, 도자기, 찻상, 고가구 등의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은 설립과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여성 불자들의 지혜로 사회를 이끌겠다는 설립 취지를 확고히 다져왔다.

2006년 3월에는 ‘21세기 여성불자의 사명’과 여성불교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부산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일반 회원 모집 등으로 여성

불자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이영숙 원장은 “불교계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그 역할들이 아직도 조직적이지 못하고 할리적이 지 못한 게 사실이다.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여성들의 지혜를 보낼 수 있도록 여성 불자들의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016)251-3582 천미희 기자

###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대구지사 : (053)768-8008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경남남부지사 : (011)571-5316
- 울산지사 : (052)272-0909

# 종교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수호대법회

- 일시 : 2007년 1월 23일(화) 오후 3시
- 장소 : KBS부산홀
- 주최 : 불교교권수호협의회
- 후원 :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

### 행사프로그램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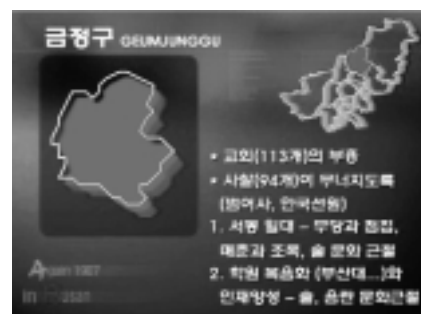
- ▶ 1부 식전행사 : 문악공연(길놀이, 살풀이, 타악퍼포먼스)
- ▶ 2부 대법회
  - 개회선언 - 삼귀의 - 반야심경 - 내빈소개
  - 경과보고 - 영상물상영
  - 교권침해와 훼손사례발표
  - 대표기연설 - 삼의정진
  - 불교중흥과 교권수호를 위한 108호법단 발대식

행사안내 및 문의 : 불교교권수호협의회  
전화 (051) 866-3386 (팩스공용)

후원계좌 : 국민은행 115301-04-004921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모이자! 불교수호 대법회로...

■ Again 1907 in Busan  
동영상자료 중



### 금정구 기도내용

- ▶ 교회 (113개)의 부흥과 사찰(94개)이 무너지도록(범어사, 안국선원등) 기도
- ▶ 그외 부산경남지역사찰 모두 무너지도록 기도

### 108 호법단 모집

- 2월 2일 범어사에서 부산불교중흥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기도 입재 (108호법단 가입희망자 전화 051-866-3386)

### 부산 불자들이여...

사찰을 무너지라고 한들 진리가 무너지겠습니까? 다만 붓다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일어섭니다. 불자들이여 모입니다. 불교수호대법회로!!!

어리석은 자가 바로보지 못함이 고통의 원인이라 하였듯,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일깨우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불교수호대법회를 통해 어리석음을 일깨웁시다!!!

나만 옳고 잘났다는 선민사상은 세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전쟁에 수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세상을 위해 불교수호대법회로 모입니다!!!